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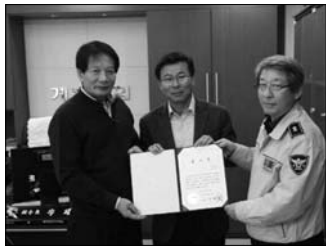
특별취재

김제보건소, 치매환자 부양가족 지지프로그램으로 공감대 형성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월, 수, 금) 8회에 걸쳐 운영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고민을 나누면서 희망과 용기를 찾아가는 시간과 궁극적으로 치매 가족들의 서로 돕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발판이 마련됐다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정신행동증상 및 치매의 위험 요인, 치매진단 및 치료와 관리,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방법 학습 및 응용, 남아있는 능력 찾기, 가족의 자기 돌보기 등의 내용으로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박래만 김제시 보건소장은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이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치매환자 부양에 두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가족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치매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능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하는 피해를 예방한 계화능협 B씨에게 부안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계화능협 직원은 지난 11월 18일 C할머니(80세)가 2350만원을 급히 대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다급한 목소리로 묻는 것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상하게 생각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할머니에게 대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판명하고, 범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결번으로 확인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할머니는 "아들이 사제업자에게 강금 당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빨리 원금 2350만원을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당황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평소 거래하는 능협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현신 서장은 "2350만 원이라는 큰돈이 할머니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 될 수 있는데 능협직원의 정확한 판단과 경찰관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경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애로사항 해결 나서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환 박경준 이하 협의체)는 21일 육산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집에서 여러 해 동안 모이던 공병 처리와 집안청소를 도왔다

이날 행사는 맞춤형 복지팀이 방문상담시 신청한 애로사항을 협의체에 전달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복지팀, 교월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0여명이 마태 30자리에 달하는 공병을 트럭에 실어 나르고 일일이 부부직업을 하여 관매할 수 있도록 했다

허리가 심하게 굽은 몸으로 하나 둘 주워 모은 공병이 집안을 가득 채워 발 디딜 틈이 없었으나 양이 너무 많아 처리를 못하고 애를 태우던 어르신은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올 한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 교통 환경 구축에 주력,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정읍시 선진교통환경조성 큰 성과

농어촌 통학 택시·브랜드 콜 내장산 콜택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만들어

효율적이고 탄탄한 교통환경 구축에 주력해오고 있는 정읍시가 올 한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 교통 환경 구축에 주력,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정읍은 도 농 통합도시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24.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등 정읍만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올 한해 이와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진 교통 환경 구축에 주력해 시민들의 삶을 질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 "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교통행정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농촌 복지 택시와 농어촌 통학 택시를 운영했다

1억6천800만원이 투입된 복지 택시는 9개 읍·면·동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또 농어촌 통학 택시는 8개 읍·면 9개교 56명 등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7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는 물론 교통 약자를 배려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내장산 콜택시에는 법인택시 197대와 개인택시 251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상 1층 연면적 498㎡의 관리동은 다목적 컴퓨터와 사무장 수련실, 사무실, 체력단련장, 산책로 등의 복지공간도 갖췄다

이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정적인 주차와 휴게 공간을 제공할

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준공에 따라 영업용 화물 자동차 발생 주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62개 노선 40.4km(중앙로, 초산로, 중정로 등)를 단속구역으로

정읍시,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

정읍시가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적정 개체 수 조절 등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26일부터(9일간) 포획 승인 신청자를 접수했고, 모두 513명에게 포획승인권을 발급했다

수렵 허가증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16종이다

수렵지역은 정읍시 전체 면적 692.88㎢ 중 수렵금지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관광지, 기타보호구역 등 100.49km)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단, 입산객과 성묘객 이동이 많은 신정(2017.1.1.)과 설 연휴기간(2017.1.27.~30./4일간)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 대상 교육이 지난 20일 정읍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됐다

시는 또 23개 읍·면·동의 마을방송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1천200개를 축사나 인가 인근에 설치했다

김생기 시장은 "수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렵인들은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 또한 가급적 입산을 금지해 부득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이용하고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방목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생기 시장은 "수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렵인들은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 또한 가급적 입산을 금지해 부득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이용하고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방목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시보건소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행사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하동주공아파트에서 지난 18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하동주공, 성덕하이빌,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 입주주인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주공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수여하고 금연아파트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하동주공아파트 등 3개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금연 분위기 조성될 수 있도록 경로당 보건사업과 연계 금연홍보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일 집중홍보의 날을 통하여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캠페인 및 담배꽂초줍기 등을 실천하여 행동하는 금연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금연사업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참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내년 예산안 6029억원 규모 편성

당초예산보다 15.4% 증가

김제시는 21일 2017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373억원과 특별회계 656억원 등 6,02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당초예산 5,224억원보다 총 805억원(15.4%)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359억원(7.2%)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6억원(21.2%)이 증가한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31억원, 지방교부세 2,460억원, 조정교부금 90억원, 국도비 보조금 1,990억원, 순세금입여금 및 내부거래 3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484억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04억원 등 65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 원칙 하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과 맞춤형 복지 등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예산투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와 함께 선심성·행사성·중복성 사업비를 절감한 건축예산 및 관행적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174억원을 편성하는 등 채무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주요 SOC사업에 반영한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444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견인할 것이며, 농림분야는 최근 쌀값 하락 등에 따른 농가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금년 대비 17.9%가 증가한 1,154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정 김

제 환경조성을 뒷받침 할 환경분야는 387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25.8%인 1,39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여 살고 싶은 희망 복지도시로의 성장을 앞당길 전망이다

한편 이관직 김제시장은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사업 하나하나 따져가며 한푼의 예산도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신중을 다했으며, 특히 사업중심의 복지분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도시를 위한 농업분야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의결 확정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하서 백련농장 마을기업 '최우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서 수상

부안군 하서면 백련 농장이 지난 18일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인증사와 함께 총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40여 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마을기업에 대해 시도 추천을 받아 1차 서면심사 및 2차 현장심사, 3차 경진대회를 통해 20개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했다

백련 농장은 주민들이 재배한 백련과 농산물을 이용해 장류와 차(茶)를 생산하며 청년과 노인, 다문화가정이 함께 하는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이다

특히 백련 농장은 농민에게 취약 계층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교육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귀농자 빈집수리 지원 및 장학금 지급, 어르신 돌봄 및 병원진료 운송 등 지역문제 해결에도 앞장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0년 부안으로 귀농한 /부안=이옥수 기자

김성수 백련 농장 대표는 연잎을 활용한 장류(원강, 간장, 청국장 등) 개발과 제조공차, 옛기름, 메주·청국장 가루 등 11개 품종의 허가를 획득했으며 매출확대를 위한 판로행사 참여 등에 힘써 연간 1억 6000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사)세계신지식인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련 농장 김성수 대표는 "앞으로 체험사업 확대, 교회, 마트, 생협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농부가 쉽터 조성 및 마을 어르신 공동목욕탕 설치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군정의 효율성 및 내실성을 높여려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우수평가를 통한 포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최우수 상 수상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수 백련 농장 대표는 연잎을 활용한 장류(원강, 간장, 청국장 등) 개발과 제조공차, 옛기름, 메주·청국장 가루 등 11개 품종의 허가를 획득했으며 매출확대를 위한 판로행사 참여 등에 힘써 연간 1억 6000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사)세계신지식인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련 농장 김성수 대표는 "앞으로 체험사업 확대, 교회, 마트, 생협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농부가 쉽터 조성 및 마을 어르신 공동목욕탕 설치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